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즉시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7월 11일(화)

## 尹 대통령, NATO 정상회의 계기 미 상원의원 대표단 접견

- NATO까지 무대를 넓혀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한미동맹 -

- 국민방미 성과 및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 재확인 -

윤석열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빌뉴스 현지시각 7.11(화) 오전 美 상원 NATO 옵서버 그룹 활동 차원에서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美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우크라이나 문제, 한국과 NATO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상원의원 대표단(6명) : ▲진 새힌(Jeanne Shaheen) (민주, 뉴햄프셔 / 상원 NATO 옵서버 그룹 공동의장) ▲톰 킬리스(Thom Tillis) (공화, 노스캐롤라이나 / NATO 옵서버 그룹 공동의장) ▲딕 더빈(Dick Durbin) (민주, 일리노이) ▲앵거스 킹(Angus King) (무소속, 메인) ▲댄 설리번(Dan Sullivan) (공화, 알래스카) ▲피트 리케츠(Pete Ricketts) (공화, 네브래스카) 상원의원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의회 합동연설 당시 의원들이 보여준 한미동맹에 대한 전폭적이고 초당적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NATO 정상회의 계기 미 상원 대표단

과의 만남이 한미동맹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면서 동맹의 무대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2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작년 주NATO 한국대표부를 개설한 데 이어, 이번에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함으로써 한-NATO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NATO 정상회의 주요 의제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우리의 對우크라이나 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 및 재건을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진 새한 NATO 옵서버 그룹 공동의장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는 물론, 미국인들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인태지역 파트너로서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인태지역 주요 국가로서 가능한 역할을 계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끝>